

FA 서건창, KIA 남는다

‘계약 기간 1+1년, 옵션 포함 총액 5억원’ 재계약

“고참 선수로서 역할 다할 것...팀 우승 견인차 역할 최선” 풍부한 경험, 뛰어난 기량...팀 시너지 효과 극대화 기대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가 베테랑 내야수 서건창과 FA 계약을 체결하며, 2025년 시즌에도 함께하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서건창은 고향팀 KIA에서 선수 생활을 이어가게 됐으며, 팀의 전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KIA 구단은 9일 “서건창과 1+1년, 총액 5억원에 FA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금 1억원, 연봉 2억4천만원, 그리고 최대 1억6천만원의 옵션이 포함돼 있다.

특히, 2026년 계약은 2025년 옵션 달성 여부 따라 자동 연장되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서건창의 활약 여부에 따라 최대 2년 동안 KIA 유니폼을 입고 뛰게 된다.

서건창은 KBO 리그에서 14시즌 동안 1천350경기에 출전하며 통산 1천428안타, 517타점, 853득점, 232도루, 그리고 0.298의 타율을 기록한 베테랑 선수다.

그는 뛰어난 컨택 능력과 주루 센스를 바탕으로 팀 공격에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해왔다. 2024년 시즌에는 KIA에 합류해 94경기에

출전, 63안타 40득점 26타점과 0.310의 높은 타율을 기록하며 견재함을 과시했다. 이러한 활약을 인정받아 한국시리즈 엔트리에도 포함됐고, 팀 통산 12번째 우승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번 FA 계약을 통해 KIA는 서건창의 풍부한 경험과 뛰어난 기량을 다시 한번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이 중요한 시점에서 서건창의 존재는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경기장 안팎에서 젊은 선수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은 물론, 멘토 역할을 수행하며 팀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계약 발표 후 서건창은 “다시 한번 고향 팀에서 뛰 수 있게 돼 기쁘다. 고참 선수로서의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며 “이런 점이 구단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젊은 선수들과 힘을 합쳐 올 시즌에도 광주에서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팀에 대한 애정과 우승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KIA 관계자는 “지난 시즌 한국시리즈 엔트리에 등록돼 통합 우승에 기여했고, 현장에서 올 시즌에도 폭넓게 활용할 뜻을 내비쳐 FA 계약을 체결했다”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계약 기간 동안 젊은 선수들을 잘 이끌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KIA는 올 겨울 FA 시장에서 장현식의 이적이라는 아쉬움 속에서도 임기영과 서건창과의 계약을 성사시키며, 올 시즌을 위한 전력 구성을 모두 마쳤다. /주홍철 기자



광주FC, ‘멀티플레이어’ 권성윤 영입

측면 전 포지션 소화 가능...볼 소유·탈압박 탁월 평가

프로축구 광주FC가 젊은 피를 수혈하며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광주는 9일 “FC서울, 부산아이파크 등에서 활약한 미드필더 권성윤(23)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오산중-오산고 출신인 권성윤은 2019년 춘계고등연맹전 결승전 결승골과 함께 팀의 우승을 이끌며 두각을 나타냈고 연령별 대표팀에도 꾸준히 발탁되는 등 재능을 인정받았다.

2020년 FC서울의 우선지명으로 프로에 데뷔한 권성윤은 2023년 대전코레일, 2024년 부산아이파크를 거치며 프로 통산 47경기 1골 4도움을 기록 중이다.

권성윤은 볼소유와 탈압박이 탁월해 측면에서 기회를 창출하는 능력이 우수하며, 순간 스피드와 개인기를 활용한 돌파로 상대를 끊임없이 공략할 수 있는 자원이자.

또한, winger 뿐만 아니라 풀백, 윙백도 소화 가능한 멀티플레이어로 측면



광주 백범기념관에서 새로운 각오를 다진 권성윤 (광주FC 제공)

팀스를 강화함과 동시에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해야 하는 광주 전술에 안정 맞춤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권성윤은 “광주는 조직력이 뛰어나고 확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는 생각을 했는데 팀에 합류할 수 있게 돼 매우 기쁘다”며 “팬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는 선수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희중 기자



토트넘의 ‘캡틴’ 손흥민이 9일 열린 리버풀과의 리그컵 준결승전에서 경기를 지켜보고 있다. /AP=연합뉴스

손흥민, 리버풀戰 72분 ‘골 침묵’

리그컵 준결승...팀은 1대0 승리

‘캡틴’ 손흥민이 선발로 나선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이 리그컵(카라바오컵) 준결승 첫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EPL) 선두팀 리버풀을 잡고 결승행의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토트넘은 9일 열린 2024-2025 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홈 경기에서 후반 41분 루카스 베리발의 결승 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2007-2008시즌 이 대회에서 정상에 오른 것이 각종 대회를 통틀어 마지막 우승인 토트넘은 17년 만의 트로피를 향해 전진을 이어 나갔다.

지난 시즌을 비롯해 리그컵에서 10차례 우승해 최다 우승 기록을 보유한 리버풀은 원정에서 일격을 당해 다음

달 7일 홈에서 뒤집기를 노린다.

최근 구단의 계약 1년 연장 옵션 발동으로 2026년 여름까지 토트넘과의 동행이 확정된 주장 손흥민은 이날 왼쪽 측면에 선발 출전해 도미니 솔란게, 데얀 콜루세브스키와 공격진을 이뤄 승리에 힘을 보탰다.

이번 시즌 EPL에서 5골 6도움을 기록 중인 손흥민은 리그컵에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의 8강전에 이어 2경기 연속 골을 노렸으나 공격 포인트를 작성하지 못한 채 후반 27분 티모 베르너로 교체됐다.

무함마드 살라하가 풀타임을 소화한 리버풀은 토트넘(9개)보다 훨씬 많은 슈팅 14개를 기록하고 유효 슈팅도 토트넘보다 3개 많은 7개를 넣었으나 모두 무위에 그쳤다. /연합뉴스

양민혁, 토트넘 등번호는 18번

토트넘 입단 후 첫 ‘명단 포함’...출전은 ‘다음 기회에’

‘캡틴’ 손흥민이 활약하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의 일원이 된 2006년생 공격수 양민혁이 등번호 18번을 달고 된다.

양민혁은 9일 열린 2024-2025 리그컵(카라바오컵) 준결승 1차전 리버풀과의 홈 경기에서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토트넘이 이날 교체 카드를 2장만 사용한 가운데 양민혁은 그라운드를 밟지는 못했으나 데뷔 기대감을 키웠다.

토트넘은 이날 소셜 미디어에 ‘min-hyeok’이라는 이름과 등번호 ‘18번’이 새겨진 양민혁의 유니폼 사진을 올려 첫 명단 등록을 축하했다.

18번은 세계적인 골잡이 해리 케인



(바이에른 뮌헨)이 2014-2015시즌 토트넘에서 사용했던 번호다. 이후 케인은 10번으로 번호를 바꿨다. 한국 국가대표팀 전 감독인 우르겐 클린스만(독일)도 1990년대에 토트넘에서 뛰며 18번을 단 적이 있다. 지난 시즌엔 현재 스페인 레알 베티스 소속인 미드필더 조바니 로셀소가 토트넘에서 18번을 썼다. /연합뉴스



아동양육 시설인 ‘광주영신원’에 차량을 기부한 김선빈(왼쪽)과 모교인 대성초, 동성중, 동성고에 야구 용품을 기증한 김도영



〈KIA 타이거즈 제공〉

김선빈, KS MVP 부상 승용차 아동시설 기증

김도영은 모교 방문 야구 용품 전달 ‘훈훈’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선빈, 김도영이 뜻깊은 기부를 실천했다.

김선빈은 지난 8일 광주시 동구에 위치한 아동양육 시설인 ‘광주영신원’에 기아 EV6 차량을 기증했다.

지난 시즌 한국시리즈에서 시리즈 MVP에 선정돼 부상으로

기아 EV6를 수상한 김선빈은 해당 차량을 광주영신원에 전달했다.

김선빈은 “MVP로 받은 차량을 더 뜻깊은 곳에 쓰려고 고민하던 중 지인으로부터 광주영신원의 차량이 노후화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장모님께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장모님께서도 사정을 들으시고 흔쾌히 기부하자고 하셨다. 작은 선물이지만 광주영신원 친구들에게 든든한 발이 돼 줬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에 앞서 김도영은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의 모교인 광주 대성초, 광주 동성중, 광주 동성고 야구부에 각각 1천만원 상당의 야구 용품을 기증했다.

김도영은 이날 세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야구 용품을 전달하며

후배 야구부 선수들을 격려했다.

김도영은 “모교에서 꿈을 키우며 열심히 훈련한 덕에 프로야구 선수로 활약할 수 있었다. 모교에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었고, 후배 선수들이 훈련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것이 보람하는 길이라 생각했다”며 “앞으로도 모교에서 훌륭한 프로야구 선수들이 꾸준히 나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홍철 기자

대한체육회장 선거 가처분 심문 오늘 열려...선거 전 결론 가능성

대한체육회 대의원 11명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와 관련해 일부 선거인단과 후보가 과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이 10일 열릴 예정이다. 선거일 전에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9일 법조계와 체육계에 따르면 서울 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포함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이 체육회를 상대로 7일 낸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을 10일 오후 3시로 정했다.

이번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도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선거 진행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8일 냈고, 이 심문 기일 또한 10일 같은 시간 같은 법정으로 잡혔다.

이호진 회장 등 대의원들은 선거 당일 오후 1시에 후보자 경선 발표를 진행한 뒤 단 150분 동안만 투표를 실시

하는 방식이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선거 중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신욱 교수 측은 선거인단 구성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고, 선거 시간이 나 장소도 선거권과 공정성을 해친다며 선거 중지를 요구했다.

이 사건들의 심문 기일은 애초 13일로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 예정일이 14일인 점을 고려해 당겨진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위낙 사회적으로 정점이 되는 사안이다 보니 아래적으로 기일이 빨리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

다.

앞서 허정무 대한축구협회장 후보가 축구협회장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선거 전날인 7일 법원에서 전격 인용되면서 선거가 잠정 연기된 바 있다.

애초 축구협회 선거 관련 가처분 사례에 비추어 대한체육회장 선거 관련 가처분의 결론은 투표일 전에 나오기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 우세했으나 심문이 예상보다 이른 시일에 진행되면서 선거일 전에 결론이 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